

# 세종시교육청, 인사·회계·평가3대 분야 처분 기준 강화

## 2025년 제4회 기자 브리핑 갖고 청렴정책 종합계획 발표

최고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17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인사·회계·평가' 등 3대 분야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를 엄정처분하는 등 조직의 신뢰도 진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최 교육감이 밝힌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보면 먼저, '인사·회계·평가' 등 3대분야 집중개선 및 중대 비위 엄정처분키로 했다.

인사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처분 기준을, 당초 '주의' 이상에서 '경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대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 행위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감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인사업무 담당자는 올해부터 '부패대응 역량 향상 과정'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인사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해, 인사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인사 예고를 확대하는 등 적극 홍보하며, 인사 시기에는 인사부조리 상시 신고 및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인사 발표 이후 감사관에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QR코드 등을 활용해 직접 '인사 결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 분야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처분 기준을 당초 '주의' 이상에서, '경고' 이상으로 처분하고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한 처분



▲ 17일, 최고진 세종교육감이 인사·회계·평가 등 3대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등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

기준을 당초 '경징계' 이상에서 '중징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는 본청과 직속기관의 모든 부서가 매월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절감과 함께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회의나 행사에서 일회용품에 담긴 음료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평가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자료 부정 유통과 △성적조작에 대한 처분 기준을 당초 '경징계' 이상에서 '중징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에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신중히 검토하고

점검할 예정이며, 평가 전과 평가 후에 각각 점검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평가 관리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지난해에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인사, 학생복지, 민간위탁, 보조금 등 대국민 직접 업무 중심으로 자가진단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행정적 소지가 높은 업무추진비 집행 등 5개 업무를 추가 발굴해 총 11개 업무(인사, 학생복지, 업무추진비,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민간위탁, 보조금 등)에 대해 자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본청과 직속기관 모든 부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행정적 소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클린재정(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해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관은

시스템 월별 조치율과 모니터링을 연 1회 확인하여 행정오류와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위기관리 집중관리 및 맞춤형 지원 제공 한다.

매년 내부통제도 진단을 실시하여 청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위기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해당 기관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자 면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3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4월 4째주를 청렴 주간으로 운영하고 4월 22일 화요일은 '청렴의 날'로 시범 운영해 교육감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청렴 우수기관과 청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여 청렴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공간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따뜻한 청렴 한 끼'라는 식사와 함께 진행되는 청렴교육을 저녁 시간에도 1회 운영하여 많은 교직원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인사, 회계, 평가 3가지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에 중점을 두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엄정 처분할 예정이며,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 아산의 학생들이 교육발전특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

## 충남교육청, 교육부장관상 수상

###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아산시의 우수 사례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며, 충남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을 통해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주목받은 아산시 사례는 폐교 예정이었던 신창중학교를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로 전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센터

는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주민 대상 평생교육·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와 협력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충남교육청의 지역 교육 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아산, 서산, 공주, 금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두호 기자

## 글로벌 전남교육, 자신있게 실현합니다

### 3월 정책협의회, 직속기관·교육지원청·역점과제 추진방안 협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생의 가치로 글로벌 전남교육, 자신있게 실현합니다'를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본청 과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및 교육협력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교육의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K-에듀 시대를 선도할 2025 전남교육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 1부에서는 ▲ 전남 수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2030교실' ▲ 교육행정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2025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별 역점과제를 공유하는 분임 토의를 가진 후,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체 협의가 이어졌다.

직속기관들은 '공생의 가치'와 '글로벌 교육'을 반영한 역점사업들을 제안했으며,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현안과 특색을

반영한 전남교육 역점과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김정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박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K-에듀를 선도할 전남교육 실현에 힘을 실어줬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2025년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 논의가 우리 학생들을 전남의 인재로 성장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전남도의회는 전남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전남교육 정책을 실현하는데 교육공동체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며 "K-에듀를 선도할 전남교육을 현장에서 자신 있게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애 기자

## 충북교육청, 학생 주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 전동킴보드, 면허 따고 헬멧 쓰고 혼자타요!

충북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호중학교 및 충북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학생 주도 전동킴보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동킴보드 면허 따고, 헬멧 쓰고, 혼자 타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동킴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규칙을 알리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리플렛 배부, 피켓 챌린지 활동으로 진행됐다.

운호중 및 충북여중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전동킴보드 이용시 면허증(16세 이

상) 필요 ▲운행 중에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2인 이상 탑승은 안돼요! 등 전동킴보드 안전수칙을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안전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학교 정문에서는 충북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운호중학교, 충북여자중학교가 함께 학생자치회 주도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청남교사거리에서는 충북교통연수원 등 16개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이 주도적으



▲ 20일 윤건영 교육감이 리플렛을 나누어 주며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전동킴보드 이

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국 기자

# 『당신을 만나기까지』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성실할수록 태도가 안정되어 간다. 성실할수록 정신을 차리게 된다. 성실할 때에만 자기가 엄연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 한 잔 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